



## [낙농경영] 프랑스 · 스위스, 역대급 폭염에 유제품 대란 경고

- 일부 지역 원유생산량 최대 30%까지 감소...우유 · 치즈 등 유제품 부족 우려



유럽 전역이 역대급 폭염에 이어 사상 최악의 가뭄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는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유제품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와 스위스 낙농업계는 극심한 더위로 산불이 발생하고 물 부족으로 값 비싼 사료를 구입해 생산을 이어나가거나 사육두수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원유생산량이 최대 30%까지 감소하면서 우유는 물론 치즈, 요거트 등 유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이상 기후로 인한 원유공급량 감소로 치즈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으며 유통에도 차질을 빚으며 소량으로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료가격 충당을 위해 젖소를 판매하는 등 산업이 축소됨에 따라 별다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올 겨울까지 우유 및 치즈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출처 : independent.ie, 8월 15일자 >

## [영양건강] 꾸준한 우유 섭취, 노년기 뇌 건강 유지에 도움

- 하루 3회 우유 섭취,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 수치 증가에 도움



적정량의 우유를 매일 꾸준히 섭취할 경우 노년기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 캔사스대학교 메디컬센터 연구진이 유제품 섭취량이 적은 60-83세 노인 7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저지방 1% 우유를 하루 3회 섭취토록하고 다른 그룹은 일일 우유 섭취량을 1.5회 이하로 제한했다.

그 결과 하루 3회 우유를 섭취한 그룹의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GHS) 수치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식품과학분야 국제학술지 프런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을 통해 발표했다.

글루타티온은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스병 등 뇌 질환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진은 우유 섭취와 글루타티온 수치 증가의 정확한 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연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출처 : kumc.edu, 8월 15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